10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2021년 10월 시청자위원회 회의

10월 26일(화)

참 석

민민홍 위원장	김학균 대표
김소라 위원	홍종훈 시청자심의실장
김용배 위원	이윤택 보도국장
문미경 위원	이선희 편성제작국장
박진솔 위원	윤경철 디지털미디어센터장
신용태 위원	전동철 콘텐츠제작팀장
이동선 위원	
장숙경 위원	

시청자심의팀

1) 위원장 개회 선언

2) OBS 김학균 대표 인사말:
10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이 있었다. 유재명 보도국장이 미디어본부장이 됐고, 옆 자리에 신임 이윤택 보도국장이다. 이선희 편성국장은 제작까지 합해서 편성제작국장을 맡게 됐다. 윤경철 디지털미디어센터장, 전동철 콘텐츠제작팀장이다.

11월 12일 마감하는 경기FM 라디오 공모 참여 준비 중이다. 11월 2일에는 제3자 배정 증자 예정이다. 현재 OBS는 TV만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 비전과 연결된 사안이다. 지상파TV 방송사가 라디오도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경쟁은 만만치 않다. 라디오 역시 지역에 기반해서 하려고 한다. OBS가 유일하게 라디오가 없는 지상파방송사다. 관심 부탁드린다.

12월 28일이 창사기념일이다. 힐링 콘서트 준비 중이다. 클래식 공연과 라이브까지 준비 중이다. 정서진 해넘이 축제 관련해서 협의 중이다. <섬 타임즈>라는 섬 이야기도 준비 중이다. <1인 미디어 국제 페스티벌>도 준비 중이다. 인천이 세계에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 지역 기업들 제품에 대한 라이브 커머스도 검토 중이다.

외부 협력도 노력 중이다. 섬 통신원, 대학생 기자 늘려가고 있다. 문화 기자에 대해서 인천예총과 논의 중이다. 이런 것이 갖춰지면, 다른 모습의 열린 방송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3) 이선희 편성제작국장 11월 개편 설명:
11월 1일자로 개편 예정이다. 분산돼 있던 뉴스를 모아 집중력을 높였다. 월드 뉴스 톡톡은 폐지했다. 오후 뉴스 하나는 빼고 3시 20분에 OBS 뉴스 <경인 플러스>를 편성했다. <인사이드 스토리>를 일요일 저녁 7시 55분으로 편성 변경해 보도를 강화했다.
정부 출자 채널과 협력을 강화 중이다. 국방TV의 <본 게임2>, 소상공인채널의 <휴먼다큐 시장 사람들>, 농업방송의 <역전의 부자농부> 등이 그 예다.
특별한 것은 <전기현의 씨네뮤직 스페셜>을 주 5일 편성한다는 것이다.

신용태 위원: 본 게임2는 국방부에서 제작한 것인가?

이선희 편성제작국장: 국방TV에서 인기 있는 콘텐츠다.

김용태 위원: 프로그램들에 대한 다음날 재방송을 뺀 것은 제 의견을 반영해주신 것 같다.

이선희 편성제작국장: 분석을 통한 배치였다.

민민홍 위원장: <발품여행 숨보명>이 경기도 지역만 다루던데, 협찬 때문인가?

김학균 대표: 지방의회 의원들을 알리기 위한 목적도 일부 있다.

민민홍 위원장: 다음에는 개편하기 전에 의견을 한번 듣는 것도 검토해주실 것을 제안드린다.

김용배 위원: 라디오 쪽 집중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오전에 자막으로라도 주요 뉴스 전해주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편성제작국장: 오전에 자막으로 주요 뉴스를 전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김학균 대표: 의견 주신 것들 고민하겠다. 개편 즈음에는 사전에 미리 큰 줄기를 말씀드리고, 시청자위원들의 의견 듣는 시간을 갖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

신용태 위원: 사전에 승인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4) 9월 제안 사항 처리 결과: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보도국장	<OBS 뉴스 홈페이지> OBS 뉴스 홈페이지 개편 후, 직관적이고 단순해져 이용 편의성이 높아졌다. 특히, 경기·인천 이슈를 깊게 다루고 있는 '한 뼘 더'를 가장 크게 배치하고 연속보도도 확인 가능해, 지역 언론 역할을 강화하는 개편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대학생 기자단이 만드는 '오대기'에는 참신함이, 섬 주민 통신원이 소식을 전하는 '인섬 뉴스'에는 생생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더 좋은 기사와 콘텐츠를 채워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오대기를 OBS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문제는 초기 타방송사 인용 등 대학생 기자들과 조율해야 할 부분이 있어 검토가 필요했다. 학생 및 학교 측과 제작상의 의견 조율이 어느 정도 이뤄짐에 따라, 가을 개편(11.1)에 맞춰 유튜브 채널 업로드를 예정하고 있다.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오대기’를 유튜브 ‘OBS 뉴스’ 채널에 올려도 좋을 것 같다. - 김소라 위원	
보도국장	<OBS 뉴스 오늘 인섬 뉴스> 섬 주민들이 직접 통신원으로 참여했는데, 언어 구사력과 영상이 군더더기 없이 조화롭게 형성돼 보기 좋았다. 사전교육이 잘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통신원과 아나운서 대화할 때 아나운서의 뒤쪽 옆모습이 보였다. 모니터 방향 등 위치 변경 검토가 필요해 보였다. 또한, 통신원 뉴스 배경 화면에 섬을 알릴 수 있는 사진을 사용하거나 OBS 소품을 사용하면 좀 더 뉴스다울 것 같다. - 김용배 위원	뉴스 제작에 있어서도 정형화된 모습보다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게 최근 추세이다. 과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 통신원 배경 화면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보도국장	<OBS 뉴스 오늘 인섬 뉴스> 첫 회에서 시민의 대표자인 인천시장의 ‘인섬 뉴스’에 대한 축하 메시지와 기대를 넣은 것은 의미가 있었다. 섬 주민들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주민들에게 안정감과 일체감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일부 통신원들이 시작할 때 하단 모니터를 보는 모습이 다소 불안정해 보였다. 인천 섬 소식을 “인섬 뉴스”로 줄여서 쓰고, <IN SUM 뉴스>로 표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In Sum은 사전적으로는 “요컨대”, “총계로” 등 의미로 쓰이고	지적하신 통신원들의 카메라 앵글에 대해선 재차 교육을 진행하겠다. ‘인 섬 뉴스’는 인천의 섬 뉴스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타이틀에 영문을 활용하였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진행해본 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향후 시청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논의를 더 진행해 보고자 한다.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있는 표현이다. - 민민홍 위원	
보도 국장	<OBS 뉴스중심> 9월 23일 성매매 집결지 내 여성들이 겪은 인권 침해와 성 착취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전시 행사를 보도했다. 성매매 추방 기간에 시의적절한 보도였다. OBS가 지역 뉴스를 잘 전달하면서도, 소수자의 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고맙다. 다만, 자막에 사용한 '집창촌'이란 표현은 성매매를 몸을 파는 여자들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표현이다. 앞으로는 '성매매집결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좋겠다. - 문미경 위원	'집장촌' 자막에 대한 지적하신 내용 반영하도록 하겠다.
보도 국장	<OBS 뉴스 오늘>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을 초대해 대통령 후보들의 여성 공약을 살펴보고 여성 군 복무, 여가부 폐지 주장이 놓치고 있는 '군대 내 인권 문제', '성별 임금 격차' 등 성불평등 해소가 시급함을 짚어주어 유익했다. - 문미경 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도하도록 노력하겠다.
보도 국장	<OBS 뉴스중심 앵커 포커스> 9월 8일 '2014년 배경 드라마 D.P. 여전히 현실', 9월 10일 '검찰의 시간 부활 조짐... 이번 대선엔?', 9월 13일 '재난지원금 항의 폭주... 이제 와 2% 더?'를 통해 언론의 날카로움을 보여주고, 시청자들의 마음을 대변해줬다. 늘 살얼음 걷듯 문구 하나하나에 신	앞으로도 시청자 중심의 정도에 어긋나지 않게 신중히 제작하도록 하겠다.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경 써야 할 텐데, 제작진이 정도를 잘 지켜 만들어주고 있다. - 박진솔 위원	
편성제작국장	<공간다큐 만남> 인천 화수동의 오래된 집, 좁은 골목, 가을비 어울리는 동네를 보면서 따뜻했다. 이런 동네를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인천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만, 피난민의 역사와 산업화 시대 어린 여성노동자들의 삶이 깃든 이 지역이 오래된 훈훈한 동네 이야기 중심으로 그려져 약간 아쉬웠다. - 유승분 위원	공간다큐 만남은 우리 주위에 늘 있었고 스쳐 지나가던 공간과 지역에 대해 잠시 시선을 고정하고 공간을 지켜가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자 한다. 한정된 제작기간과 제작분량으로 인해 깊이를 더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편성제작국장	<발품여행 숨보명> 자연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경기도 용인시를 소개했는데, 서울 근교에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 교육적인 공간이 있음에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홈페이지 다시보기 화면 오른쪽에 비어있는 부분에 프로그램에서 소개하고 있는 장소 리스트가 들어가면 정보전달 측면에서 더욱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 신용태 위원	추후 홈페이지 정보란에 해당 에피소드에 나온 장소와 정보가 들어갈 수 있게 조치하겠다.
콘텐츠제작팀장	<특집 문학산 음악회> 산 정상의 자연 풍광과 인천시립교향악단의 음악이 어우러진 시작이 인상적이었다. 무관중 음악회였지만, 유튜브 생중계로 시청하는 누리꾼들 반응을 전해주어 소통하는 느낌이 들었다. 다만, 진행자와 출연자 얼굴에 그림자가 많이 생겨 아쉬웠다. 핀 조명이	지속된 코로나19 여파로 지친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인천시민에게 한 번 더 나아가고, 희망을 전하기 위해 진행된 문학산 음악회. 무대의 주인공인 진행자와 출연자의 얼굴에 그림자가 지지 않고 무대에서 돋보이도록 핀 조명, 무대 조명을 확보하여 인천시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연을 관람, 시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다. - 박진솔 위원	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
콘텐츠제작팀장	<특집 문학산 음악회> 산 정상에서 하는 음악회이다 보니 하늘과 산 능선이 탁 트이게 보여 좋았다. 일몰과 무대배경, 조명이 어우러져 신비롭고 환상적인 느낌을 줬다. 대중적으로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사랑, 자유를 노래하는 감미로운 곡들로 구성되어 편안함을 줬다. 다만, 2021년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음악회를 개최한다는 아나운서의 멘트에 추가 설명이 없어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다. 무관중 음악회라서 박수갈채가 없었기 때문에 소통하는 느낌이 없어 아쉬웠다. OBS와 함께 하는 인천의 대표적인 음악회로 자리 잡았는데, 홍보가 덜 됐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웠다. 또한, 모바일 앱에서는 찾기 힘들어, 이용이 불편했다. - 장숙경 위원	기존 문학산 음악회와 다르게 이번 2021년 문학산 음악회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4계절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 궁금증 해소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었고 추후 방송에서는 자막과 진행자 멘트를 보충하여 시청자들이 보다 편하게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제작하겠다. 또한 인천을 대표하는 음악회로 인천시민이 좀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홍보에 힘을 쓰도록 하겠다.
콘텐츠제작팀장	<특집 문학산 음악회> 정기적으로 산에서 열리는 전국 거의 유일한 음악회로서 인천시와 협력을 통해 음악회의 정체성을 특화하고 브랜드화할 만한 가치와 가능성이 있다. 다만, 타이틀, 현판, 현수막 등의 디자인과 타이포그라피가 통일감이 없고 지나치게 노출적이어 아쉬웠다. 현장 음향 문제로 남성 콰르텟 '라포엠' 무대에서 4인이 번갈아 인이어를 꼈다 뺐다 하는 장면이 노출되어 몰	문학산 음악회는 산 정상에서 열리는 유일한 음악회로 인천시민, 시청자들이 보다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영상 타이틀, 현판, 현수막의 통일된 디자인으로 통일감을 주도록 하겠다. 출연자 인이어 또한 사전 리허설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출연자가 인이어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고, 본 공연에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입을 방해했다. - 주홍미 위원	더 깔끔한 무대를 만들도록 하겠다.
콘텐츠제작팀장	<돌아온 불타는 그라운드 2021> 고교 드래프트를 다루었는데, 고교야구 선수들의 모습, 긴장감, 인터뷰 등이 사실적이고 흥미로웠다. 다만, SSG 스태프들이 고교 선수들을 평가하고 고민하는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줬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야구계 내부 용어들이 나올 때 잘 해설해주는 것도 필요해 보였다. - 이동선 위원	앞으로도 제작진은 야구팬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주제를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주제에 맞는 더 깊은 취재로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며, 어려운 야구 용어는 쉬운 설명자막으로 이해를 돕겠다.
기타	<홈페이지 편성표 표기> 홈페이지 페이지마다 '편성표' 혹은 '편성 안내'로 표기가 달랐다. 편성표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탭에 '편성 안내'라고 뜬다. 일치하도록 수정하면 좋을 듯하다. - 박진솔 위원	메인 외 프로그램 페이지에 표기되어 있는 편성안내를 편성표로 수정 완료했다.
기타	<홈페이지 프로그램 정보 제공> 대부분 인터넷 홈페이지들에서는 UI 중 제목, 배너,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해당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OBS 홈페이지에는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다시보기가 불가능한 프로그램이 추천으로 소개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추천되는 형태로 변경한다면, 시청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OBS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신용태 위원	다시보기가 지원되지 않는 프로그램의 노출을 차단 처리했다. 다만, 다시보기가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5) 10월 방송 내용 및 2021년 11월 방송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장숙경 위원: <OBS 뉴스중심>에 대한 의견

“앵커 포커스”, “한 뼘 더”는 인지도와 호감도가 상승하고 있다. 앵커의 스탠딩 진행도 스튜디오를 넓어 보이게 만든다. 자막 배치도 전체적으로 인지하기 좋아졌다.
다만, 좌측 하단 뉴스중심 로고가 평일과 주말에 다른 점, 티커 뉴스가 주말에만 있는 점, 우상단 코로나 상황 자막에서 확진자 수와 접종자 수 안내가 자주 바뀌는 점이 어색했다.
구성 면에서는 경제면 뉴스가 좀 부족해 보인다.
모 취재기자의 어미를 특이하게 늘리는 발음이 어색했다. 기자들의 어색한 발성과 발음 때문에 뉴스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방해받는 경우가 있다.
- 장숙경 위원

김용배 위원: <OBS 뉴스>에 대한 의견

체결 예정인 인천시, 국토교통부, 공항철도 3자 협약으로, 영종도 주민들이 더 비싼 공항철도 요금을 지불해야했던 불합리한 요금체계가 개선되게 됐다.
다만, 정부가 10억 원의 시스템 구축 비용만 분담하고, 인천시가 매년 3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협약 조건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정부 지원을 더 확장하는 협약이 될 수 있도록 OBS가 집중적인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김용배 위원: <OBS 뉴스 오늘 인섬 뉴스>에 대한 의견

10월 15일 방송에서 ‘홍어 스테이크’를 소개했는데, 단순히 섬 소식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특산물의 유래와 요리법을 소개한 것이 좋았다.
소상공인과 상생을 위해, 인근 식당과 콜라보해 섬 소식을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이동선 위원: <뉴스코멘터리 막전막후>에 대한 의견

종편 시사프로그램에 비해 토크 내용이 흥미롭다. 자료 화면 사용도 적절하다.
다만, 수평적인 좌석 배치 때문인지 출연자들 시선이 흔들려, 집중을 방해하고 있다. 대부분의 토크가 사회자와 무관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원탁 또는 마주보는 방식이 더 좋을 것 같다.
사회자 박지훈에게는 좀 더 자유로운 토크를 요구해 개성을 살려주면 좋을 것 같다. MC장원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 한줄평 같은 고정 역할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화제의 인물’, ‘눈 여겨 볼 정치인’ 방식으로 인물을 선정해 소개하거나 주제에 대한 온라인 여론이나 최고의 댓글 등 시민 반응을 소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민민홍 위원장: <테마기행 두 바퀴로 만나는 세상>에 대한 의견
코로나로 지친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내국인의 국내 여행 촉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다.
시청자들이 나중에 찾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더 상세한 지도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군수 등 공무원 출연보다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주민 또는 마을 이장이 출연해 소개하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다.

신용태 위원: <테마기행 두 바퀴로 만나는 세상>에 대한 의견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찾아 떠나는 신개념 로드 다큐 프로그램이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잘 담아냈고,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보여줬다.
소개된 생강굴을 보며, 생강 농사 지으시는 분들의 정성과 지혜를 엿볼 수 있었다.
삼례문화예술촌과 비비정예술열차에 숨겨진 아픈 역사 이야기도 아름다운 노을과 함께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신용태 위원: <홈페이지>에 대한 의견
배너를 클릭했을 때, 링크를 통해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 있어 어색했다.
"돌아온 불타는 그라운드 2021"은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프로그램 내용을 좀 더 공격적/적극적으로 보여준다면 시청자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 프로그램을 보다 전면 배치했으면 한다.
또한, 배너의 그림만으로는 해당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알기가 어려웠고, 배너에 써 있는 방영 시간은 글자가 작아 가독성이 떨어졌다.

문미경 위원: <인사이드 스토리>에 대한 의견
시의성을 갖추며 전문성 있는 인사들을 섭외하고 있다.
다만, 임영묵 작가에 대한 진행자의 말투가 나이 어린 사람을 하대하는 것처럼 느껴져 불편했다.
2021년에 42차례 방송이 이뤄졌는데, 여성 출연자는 1명(정춘숙 국회의원)이었다. 좀 더 다양한 섭외가 필요해 보인다.

박진솔 위원: <인사이드 스토리>에 대한 의견
초대 손님 섭외가 회차별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에 못지 않게 한 회차 내 균형감각도 중요하다.
출연자의 발언 중에 보완 설명이 필요할 경우, 진행자의 정리나 자막을 통해 균형감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한상진 교수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 매진하다 보니, 오히려 그 적폐청산이 증오를 더욱 불러워 대통령 2명, 관계된 사람을 감옥에 넣고 지금까지 적

폐청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2인에 대해 그동안 드러난 위법, 불법, 탈법 행위를 생각할 때, 진행자 멘트나 자막을 통해 균형을 잡아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진솔 위원: <OBS 프리랜서 기자, 강화군 홍보성 기사 관련 미디어오늘 보도>에 대한 의견

미디어오늘 12일자 기사 "OBS 조직개편 반발 더해 '군수 위한 비선활동 기자' 논란까지"를 봤다. 문제가 된 기자는 지역신문 기자 출신으로 2년간 강화군수 공보관으로 있다가 물의를 일으켜 재임용되지 못했으며, 올해 5월 OBS 프리랜서 경력기자로 채용됐다. 해당 기자가 써온 기사가 거의 강화군 보도자료, 홍보성 기사였다고 한다.

OBS는 채용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인가? 더팩트에서 보도한 게 10월 5일인데, 12일에야 계약 해지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관련한 설명을 듣고 싶다.

김소라 위원: <OBS 보험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9월 30일 방통위가 방송사들의 보험상담 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사실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으며, 상당전화를 통해 얻은 DB 정보 활용 행위가 방송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방통심의위로부터 보험방송 관련해서 8개 프로그램이 행정지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 중 OBS 프로그램이 4개였다.

최근 편성표에서 보험 관련 프로그램들이 모두 빠져있는데, 논란이 가라앉더라도 대거 편성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향후 보험 관련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OBS의 입장을 알고 싶다.

유승분 위원: <공간다큐 만남>에 대한 의견(서면 제출)

10월 19일 방송에서는 인천 차이나타운을 소개했는데, 한국 속 중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신기한 경험이었다. 중국 문화, 건축 양식, 하얀 짜장 등 차이나타운만의 특징을 잘 살려 보여줬다.

하지만, 지나치게 중국 음식 소개에 치우친 듯해 아쉬웠다. 주변 지역과의 조화 없이 지나치게 상업화돼가는 모습에 대해 아쉬워하는 인천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면도 함께 다뤘으면 어떨까 싶다. 더불어, 개항장 인천에서 중국 조계지의 모습 등도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윤택 보도국장: 해당 OBS 프리랜서 기자 관련 기사는 10월 5일 더 팩트에서 강화군수를 공격했던 기사 속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해당 기자에게 책임을 물었다. 한글날 연휴 끝나고 가장 빠른 근무일이 12일이었기 때문에, 12일에 계약 해지했다.

박진솔 위원: 프리랜서 기자 영입할 때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확인했으면 한다.

홍종훈 시청자심의실장: 보험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새로 생긴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방통위의 협찬 고지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지켜보고 있다.

김학균 대표: 보험 프로그램에는 시청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수익성이라는 양면이 존재한다.

김소라 위원: 보험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이다. 좀 더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본다.

김학균 대표: 작년 방심위의 지적은 주로 전화번호 지속 노출에 대한 것이었다. 관련해서는 노출 시간을 조정해서 관리했었다. 금융위와 방통위가 상충되는 부분을 정리하면, 세심히 챙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편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6) 차기 회의 일정: 2021년 11월 30일(화) 15:30